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탈북민 멘토-멘티 결연식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민)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전주시 연기 3층에서 전북지역 협의회장, 멘토 자문위원, 탈북민 멘티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이웃사촌' 전북지역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자문위원(멘토)-탈북민(멘티)간 결연맺기 및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탈북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표용하고 성공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8일에 1차 멘토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멘토-멘티 간 멘토링 서약과 선배 멘토 멘티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멘토와 멘티가 하나의 마음으로 동행할 것을 의미하는 동심결 맘풀끼를 서로 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송현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전북도민으로 정착한 멘티가 함께 성장하고, 멘티가 성공적인 정착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개인의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봉사하며 '우리 안의 통일'을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한마음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회의는 멘토 자문위원분들 개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맞춤형 멘토링을 전북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경찰청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현대 김제시네이' 진행, 지평선축제 등 홍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김제 홍보를 실시하여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실시된 K리그 14라운드 김천 상무와 전북현대 홈경기에서 '김제시네이'를 진행했다.

이날 '김제시네이'를 기념해 시가 선수단에 20kg '지평선 쌀' 30포를 증정했으며 흥보용 쌀과 쌀마스크팩 3천개를 입장하는 팬들에게 선물했다. 또, 하프타임에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 김제시 흥보영상은 상영하고 깜짝 이벤트를 통해 특산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명품 새싹밥과 '지평선 누룽지' 10점을 증정하며 김제를 알렸다.

또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이 시축을 실시했으며 지역인물들로 구성된 에스코트 키즈 22명이 흥 구장을 방문한 1만 7,000여명의 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주에서 왔다는 A씨는 "김제가 지평선축제로 유명해 해마다 찾아가고 있다"면서 "오는 10월에 열리는 지평선 축제에도 꼭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축구장에서 흥보를 하니 신선하고 입장할 때 받은 미스터피디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김제지평선축제에 많은 방문을 바랍니다"면서 "전북현대가 승승장구하기 김제시가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대강면, 찾아가는 이불 빨래 봉사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종표)은 지난 26일 적십자 가온누리 기독봉사회(회장 김희만) 30명과 관내 취약가구 60명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을 지원했다.

이날 이불빨래 텔수차량은 대한적십자 전북지사에서 협조하고 급수는 상수도사업소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사촌 1마을 김갑현 이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빨래한 빼놓았을 헝이 나는 이불을 받으시고 흡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강면 맞춤형복지팀 이아영 팀장은 "봉사에 함께 한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5연승 질주

'2024 K4리그' 9라운드 서울중랑축구단과 홈경기서 김현의 결승골로 1대 0 승리

27일 전주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주대운동장에서 열린 2024 K4 리그 9라운드 서울중랑축구단과 홈경기서 김현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 0으로 승리하며, 연승을 이어갔다.

이날 승리로 전주는 5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승점 18점으로 단독 2위로 올라섰다.

경기초반 전주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전방에서 김도형과 박재근, 이영찬, 김현, 심요섭이 득점 기회를 찾았다.

전반 13분에 골이 터졌다. 심요섭이 상대 왼쪽에서 패스한 공을 김현이 페널티박스 중앙에서 침착하게 밀어 넣었다.



이후 양 팀은 골을 넣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전반에 1대 0으로 앞선 채 경기를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서울중랑은 동점 골을 넣기 위해 선수를 교체하는 등 변화를 줬지만 전주 수비에 번번이 막혔다.

전주는 이후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상대 공격을 차단하면서 1 대 0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다.

양영철 감독은 "이날 승리로 리그 5연승과 함께 선두권에 진입했다"면서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줘 승리할 수 있었고 흥 경기장을 찾아준 서포터즈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제8회 한옥마을 전국 트로트가요제 6월 15일 개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WBC 복지TV 전북방송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메일신문사가 주관하는 '제8회 한옥마을 전국 트로트가요제'가 6월 15일, 전주한옥문화광장에서 열린다.

한옥마을 전국 트로트가요제는 한옥마을 활성화와 전통문화도시 홍보는 물론 전국의 트로트 동호인들이 전주를 찾는 도시로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참가자 접수는 6월 5일 오후 5시까지,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번에서 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전국의 모든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타 대회 및 본 대회 대상 수상자, 최우수상 수상자는 제외된다.

/김재훈 기자



제35회 전북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 성료

(사)한국스피치응변협회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내 각 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교정원우회가 주관하는 '제35회 전북 스피치인 한마음 축제'가 지난 25일 전주덕진공원 만남의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양숙 한국스피치 응변협회 전북회장, 황금석 제35회 스피치인 축제위원장, 김시우 제35회 스피치인 축제후원위원장, 김만기 제35회 스피치인 축제추진위원장, 김기수 스피치 전답교수 전북리더십연구원장, 이호기 스피치인 축제 준비위원장 등 원내 12명과 참가원우 20여 명 및 일반시민 50여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전행사, 개회식, 축하공연, 각반 장기자랑, 우정의시간 행운권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진행된 노래자랑에서 김순원(우석대)씨가 대상을, 남궁진원광대)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임미숙(우석대 리더십 과정)씨가 우수상을, 박선행(전북대)씨가 우등상을 수상했으며, 한태순(전북과학대)씨와 리보경(전주교육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방미영(원광대 노래교실)씨는 인기상을 수상했다.

한국스피치인 축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0개 대회를 개최해온 전국 최대 규모의 스피치인 축제로, 전국 10개 대회를 개최해온 전국 최대 규모의 스피치인 축제로, 전국 10개 대회를 개최해온 전국 최대 규모의 스피치인 축제로,



만·양예순·이홍엽씨는 공로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양숙 축제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마음을 열고 우정과 친교는 물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의미있는 축제로 승화시키자"고 했으며, 황금석 축제 제전위원장은 "모두가 하나 되어 참여하시는 슬로건 답게 주인공이 돼 소통하는 원우, 호감받는 원우가 되는 축제로 승화시키자"고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황금농장 행복드림복지회, 연합야엔지, 신미자·오이순·김영숙·김복례·박세현·한태순·배성

/김재훈 기자



고창군 성송면, 고산 소나무 작명 기념 첫 등반대회 열어

고창군 성송면(면장 고미숙)이 27일 성송면민과 학생 산악회원들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산원을에서 '성송면 고산 소나무 작명 기념 첫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성송면 고산 소나무 만나서 반갑송' 작명을 기념하고 높이 527m의 고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반은 성송면 고산등산로 입구인 암자재를 출발해 360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대 역할을 하는 고산 정상을 보고 다시 올라 왔던 길로 하산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산의 역사는 물론 울창한 송림과 다양한 꽃들을 보면서 자연의 기운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성송 고산 소나무 이름을 만나서 반갑송'으로 소나무 이름짓기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고창=김영숙 기자



남원소방서, 뽀뽀뽀어린이집 119청소년단 입단식

남원소방서는 27일 2024년 뽀뽀뽀어린이집 119청소년단 입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119청소년단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해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미래 안전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단체다.

청소년단은 2019년부터 출범해 기관·단체·학교·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복지장을 입고 풍남문부터 시작해 태조로를 거쳐 전주전통술박물관까지 퍼레이드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석 활동대장 총재는 축사를 통해 "한국미래와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나아가 전주 시민으로서의 정서를 살려가자"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한옥마을 세계평화 염원 퍼레이드 개최

세계평화선언문 제11주년과 전주한옥마을 2000만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걷기대회가 지난 25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전주 한옥마을 상인회와 전북연합신문사가 주최하고 HWPL전북지부가 주관했다.

UN산하 비정부기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글로벌12지부(명예이사 최종일·이하 HWPL 전북지부)는 이날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회화와 포옹의 시민정신을 위한 문화 간 소통'을 주제로 평화 걷기 행사와 함께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평화 걷기 대회는 HWPL전북지부 회원과 시민이 모여 진행했다. 전통한복·교복·경성의복 등 다양한 복장을 입고 풍남문부터 시작해 태조로를 거쳐 전주전통술박물관까지 퍼레이드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석 활동대장 총재는 축사를 통해 "한국미래와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나아가 전주 시민으로서의 정서를 살려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HWPL전북지부 최종일 명예이사는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 전주가 2000만 관광객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